

## 오스나부르크 선언

유엔 지정 세계 지구의 해인 2008년 6월 22~26일에 독일 오스나부르크에서 열린 제3차 국제 지질공원 회의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지질공원은 지구의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전하면서 이 유산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지닌 21세기를 위한 실험적인 지역이다.
2. 지질공원은 교육과 지속가능한 지질관광 활동을 통해 지구의 역사에 대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소통을 위한 탁월한 수단을 제공한다.
3.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위한 수정된 지침과 운영절차는 더 높은 수준의 활동적인 지질공원으로 발전하는데 훌륭한 기반이 되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밑받침을 제공한다.
4. 우리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구의 지질 다양성을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 또한 지질공원 지위를 얻고자 하는 지질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함께 일할 것을 다짐한다.
5.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인간과 생물권 사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6. 의사소통이 지질공원 성공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하면서 세계 지질학계는 지질위험과 기후변화 같은 지질학적 이슈의 중요성을 사회와 소통하는데 계속 함께 노력해야 하며, 지질공원이 이를 위한 매우 유용한 방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7. 이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이 지질유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질공원은 계속 지역사회 및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6월 26일

독일 오스나부르크